

'살아있는 문화' 제주해녀 매년 200명 ↓

2019년 3820명 → 2020년 3613명 → 올해 3226명 '뚝' 50세 미만은 89명 뿐... 신규가입도 매해 30명 수준 도 "고령화로 감소세... 해녀 의견수렴 문제점 개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제주 해녀'가 고령화로 매해 인원이 줄면서 명맥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해녀 수는 3226명으로 지난 2019년 3820명 대비 594명이 줄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3820명에서 2020년 3613명, 지난해 3437명 등 매해 감소 추세다.

특히 현재 활동 중인 해녀 중 70세 이상 고령자가 64.8%(2090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해녀 인원 10명 중 6명 이상이 고령 해녀인 것이다.

50세 미만 젊은 해녀는 89명(제주시 43·서귀포시 46명) 뿐이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해녀는 3명, 30대 해녀 12명, 40대 해녀는 74명이다.

반면 신규 해녀로 가입하는 인원은 매해 30명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다. 신규 해녀 가입 현황을 보면 2018년 29명, 2019년 49명

에 이어 2020년 36명, 2021년 38명, 지난해 28명 등 감소 추세다.

이처럼 제주 해녀 고령화와 감소 추세에 따라 제주도가 해녀 양성대책을 마련하고, 젊은 해녀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신규·젊은 해녀 복지 향상과 직업 안정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우선 최근 5년 간 도내 여초계에 가입한 신규 해녀와 50세 미만 젊은 해녀 260여명을 대상으로 내달 6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조사항목은 ▷물질소득 현황 ▷부업 종사실태 ▷기존 정책 만족도 ▷추가 필요 발굴정책 등 7개다.

또 도내 40세 미만 신규 해녀 등

30명 내외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청년해녀로서 초기 정착 등 애로사항과 마을어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한 정책도 늘린다. 도는 해녀학교 2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과 함께 1인당 100만원의 어촌계 가입비 지원, 40세 미만 신규 해녀 대상 3년간 월 30만원의 초기정착금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녀들이 공감·체감하는 신규해녀 유입·양성정책을 발굴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희기자 dhkang@ihalla.com

오늘의 날씨와 생활

2월 24일 금요일 음 2월 5일 (12월)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60%	제주	10%
60%	성산	10%
60%	고산	10%
60%	서귀포	1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3/7°C
모레	맑음	3/9°C

흐리고 비

제주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6~7°C, 낮 최고 기온은 9~14°C로 전망된다.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으니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겠다.

해돋이 07:09	달뜨기 09:32
해질 18:25	달짐 22:53
물때 만조 01:10	간조 07:40
13:25	20:05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관심	관심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전통시장 감시다!!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한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성문향토오일장	3, 8
표선오일장	2, 7
대정오일장	1, 6

■ 제주도청소년활동센터, 중·고 찾아가는 교육 설문 10명 중 6명 "노동인권교육 경험 전문"

91% "부당한 일 발생하면 교육받은 대로 대처할 것"

제주지역 청소년 10명 중 6명은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지정을 받아 지난해 9월부터 청소년근로보호 사업을 벌이고 있는 제주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이 같은 내용의 도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대상 근로(노동)인권교육 설문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지난해 11~12월 중·고등학교 17곳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응답자는 총 1729명이었다.

설문 결과 전체의 60.2%는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한가'란 질문에는 90.6%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때문인지 응답자의 86.2%는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평가에서 '만족한다'고 답했다. 88.7%는 이 교육을 통해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줄었다'고 했다. '앞으로 노동 과정에서 부당한 일이 발생한다면 교육을 통해 알게 된 대처 방법을 실천하겠다'는 응답률도 91%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청소년만이 아니라 사장님이나 어른들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올해도 학교별 신청을 받아 상·하반기로 나눠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교육에서는 아르바이트 10계명,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청소년 근로 상담과 부당 처우 대처법,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등이 이뤄진다. 또한 최저임금과 청소년 근로 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청소년 행복 일터'를 발굴해 홍보하는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전선희기자

도, 만장굴 모니터링 "추가 낙석발생 없어"

제주도는 지난 1월 26일 낙석 발생으로 임시 폐쇄한 만장굴 모니터링 결과, 22일 현재 까지 추가 낙석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계유산본부는 입구부터 계단까지 결빙으로 낙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구간에 부직포를 깔고 하루 4차례에 걸쳐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4대의 카메라로 구간별 24시간 영상을 촬영해 낙석 발생 시 확인 가능한 기록과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도는 오는 3월 10일까지 모니터링을 실시, 전문가들과 개방 시기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대로그기자



바다를 나는 패러글라이딩 23일 제주시 함덕서우봉에서 관광객들이 패러글라이딩을 하며 겨울 끝자락 바다 위를 날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 비 그친 뒤 '꽃샘추위' 온다

기상청 "찬 공기 남하하며 평년보다 3~5°C 낮아"

기압골 영향으로 24일 새벽까지 비가 내린 제주지방은 주말동안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꽃샘추위'가 예상된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 지방은 23일 밤부터 24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다 낮부터 주말까지는 구

름 많겠다. 비가 그친 후에는 찬 공기 영향으로 주말인 25일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3~5°C가량 낮아 쌀쌀한 날씨가 예상된다. 24일 낮 최고기온은 9~14°C,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2~3°C, 낮 최고기온은 5~9°C가 되겠다.

이번 추위는 다음주 초인 27일 오전까지 이어지다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오후부터는 제주도 육상과 해상 모두에서 순간풍속 15m/s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고 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의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주 제주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기온도 오는 3월 1일에는 15°C까지 오르는 등 포근하겠다.

유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사람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제주중앙고등학교 여성총동문회 2023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희망찬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문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주중앙고 여성총동문회 제29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 하오니 참석 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임회장
김정순(25회)



취임회장
김미경(26회)

일시 2023년 3월 1일(수)

장소 팔레스 호텔 10층

1부 정기총회(10:30)

2부 회장 이·취임식(11:00)

역대회장

2대회장 박화자 (3회)

5대 박옥순 (13회)

6대 서용순 (18회)

7대 김영희 (13회)

8대 현희순 (16회)

9대 고정렬 (20회)

10대 고순아 (21회)

11대 이현숙 (22회)

12대 김공유 (23회)

13대 박재량 (24회)

2022 중앙고여성총동문회 집행부임원

명예 회장 이현숙 (22회)	총무부장 송정열 (38회)	1 차 장 오나연 (25회)
직전 회장 박재량 (24회)	1 차 장 홍경은 (29회)	2 차 장 홍경은 (29회)
회 장 김정순 (25회)	재무부장 조창심 (39회)	2 차 장 김재현 (39회)
수석부회장 김미경 (26회)	1 차 장 부영자 (24회)	1 차 장 현미자 (25회)
감 사 고순덕 (21회)	2 차 장 김민희 (33회)	2 차 장 최유순 (22회)
송예순 (23회)	홍보부장 정은심 (28회)	1 차 장 김경자 (25회)
부 회장 강인숙 (20회)	1 차 장 한인숙 (27회)	2 차 장 김경자 (25회)
정성자 (21회)	2 차 장 김경자 (25회)	문화부장 차옥화 (25회)
오연숙 (22회)	홍보부장 최유순 (22회)	1 차 장 홍임열 (29회)
이복희 (24회)	1 차 장 정은심 (28회)	2 차 장 한인숙 (27회)
김미령 (25회)	2 차 장 김경자 (25회)	장학부장 김인실 (32회)
강경자 (26회)	문 화 부 장 차 옥 화 (25 회)	1 차 장 김경자 (25회)
김봉이 (27회)	1 차 장 홍임열 (29회)	2 차 장 한인숙 (27회)
이영옥 (28회)	2 차 장 김인실 (32회)	장 학 부 장 김 인 실 (32 회)
홍행옥 (29회)	장 학 부 장 김 인 실 (32 회)	1 차 장 김경자 (25회)
고복만 (30회)	1 차 장 김경자 (25회)	2 차 장 고정순 (29회)
양영심 (31회)	2 차 장 고정순 (29회)	체 육 부 장 변 인 숙 (27 회)
이계성 (32회)	체 육 부 장 변 인 숙 (27 회)	1 차 장 박재선 (32회)
현복희 (33회)	1 차 장 박재선 (32회)	2 차 장 이선희 (38회)
부정아 (34회)	2 차 장 이선희 (38회)	봉 사 부 장 변 춘 이 (27 회)
최영숙 (35회)	봉 사 부 장 변 춘 이 (27 회)	1 차 장 고미순 (25회)
진정자 (40회)	1 차 장 고미순 (25회)	2 차 장 이명선 (27회)

축 감사패

총무부장 송정열(38회)
재무부장 홍경은(29회)
자문위원 고미선(20회)